

반세기만에... 無等山 정상 軍 철수한다

광주시·국방부 다음달 3일 이전협약 체결...군, 이전 공식 선언
내년 예산 15억 편성...국방부 이전비용 마련·공단 생태계 복원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위한 첫 결실이 맺어진다. 1966년에 정상에 방공포대가 들어선 지 50년만이다. 광주시는 오는 3일 국방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무등산 정상 군부대(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의 이견에 따라 광주일보에 기획기사(8월

27·28·31일자 1·3면)를 통해 수차례 군부대 이전을 촉구했고, 구체적 결실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선언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된 협약 내용은 이전 사업비는 국방부가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하고 정상의 생태계 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맡는다.

아울러 3개 기관은 군부대 대체 후보지 선정, 해당 지자체 설득 방안강구, 부대이전 비용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이전 방식이 눈길을 끄는 것은 통상적인 '기부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방부가 사실상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군부대가 위치한 무등산 정상 부지가 국방부 소유가 아닌 광주시와 전남도, 사유지(사찰림)인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에 군부대 이전 기본계획(타당성조사 포함)과 기본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2018년까지 후보지 선정과 시설설계 등을 마무리하면 2019년까지는 군부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군부대가 떠나고 난 뒤 무등산 정상 자연생태계 복원사업(10만8000여㎡)을 공단이 맡아서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전사업에 400억원, 복원사업에 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등산 정상인 천왕봉해발 1187m 고지에는 공군 제8989부대 이하 3포대가 1966년부터 주둔 중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아차공장·車산업밸리 구축 '광주형 일자리'로 뒷받침

자동차 100만대로 광주경제 미래 열자

<중> 인프라·기술력 충분

광주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계획'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보완' 결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이 사업에 공감하고 있고 타 도시와 견주어 충분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는 것보다 현지 생산이 더 싸다고 판단하면 자연히 옮겨 온다. 자동차 판매와 출고,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국내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애프터마켓을 열고, 인근엔 자동차 테마파크를 지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광주의 자동차산업과 엔진 및 부품 제조업은 다른 지역의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광주에 부품과 완성차를 망라하는 클러스터를 만들면 다른 지역의 생산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광주를 자동차산업 거점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그 중심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있기에 가능하다. 1996년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시작해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의 중요한 경제축이기도 하다. 광주 전체 제조업 고용의 23.6%인 14만8000명(2013년)이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 자동차산업의 매출 역시 11조9000억원으로 광주 전체 제조업 매출의 40.6%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자동차가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려면 일단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유치사업이 대부분 그렇듯 명분만으론 한계가 있다. 기업이 스스로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윤장현 시장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광주형 일자리'다. 광주형 일자의 핵심은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적정 임금(보통 임금 수준의 70~80%)을 받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 광주형 일자의 첫 실험이 바로 자동차산업밸리에서 이뤄진다. 광주시는 현재 62만대의 기아차 광주공장 최대 생산규모를 100만대로 끌어올리면서 연봉 4000만원 정도의 광주형 일자리를 1만개가량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실제 자동차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산업 인프라가 없는 광주로선 자동차산업 거점도시로의 도약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러한 절박함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계획을 낳았다.

계획은 나무랄 데 없지만 예타 '보완' 결정에서 보듯이 현실은 녹록치 않다.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한 사업비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사업이 또다시 1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광주가 경제적 소외, 정치적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 모두의 진심어린 지원이 필요하다.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의 핵심은 자동차 집적화 산업단지다. 자동차 생산 규모를 100만대로 늘리면서 고부가 핵심부품 산업을 키워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100만이란 숫자가 가진 의미는 크다. 생산 규모가 작으면 부품업체들이 굳이 광주에 터를 잡을 필요가 없다. 연 50만대 이상을 꾸준히 생산하는 기아차 공장이 있지만 울산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가 부품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100만대 정도로 덩치가 커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들어 운송하

문 대표의 또 천정배 신당세력 등과의 통합 추진도 제안한 데 대해선 "우리 당내 단합과 함께 당 외에 있는 천정배신당 추진그룹과 함께 연대가 이뤄져 박근혜정권의 독재, 독주, 독선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안박' 연대 구상의 한 축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문 대표와 안 전 공동대표 사이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노력하겠다"고 답해 중재 역할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혁신토론회 참석 등을 위해 30일부터 1박2일간 광주를 방문한다. / 박지경·최권일 기자 jkpark@



안 돼? 착잡한 문·박 안철수 전 공동대표(왼쪽)는 29일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 제안을 거부했고, 문 대표(가운데)는 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은 두 사람의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철뉴스

안철수 '승부수'... 시野제로

'문안박' 거부 혁신전대 역제안...천정배와 통합 국민저항체제 구축
文 "안타깝다"朴 "중재역할" 安 1박2일 광주 민심 탐방 나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 문 대표와 자신이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역제안했다. <관련기사 3면> 이처럼 '문안박' 연대가 무산되고 혁신 전당대회 개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내 분란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안박 연대만으로는 우리 당의 활로를 여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당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진실로 모두가 화합하는 감동과 파격을 만들기에 부족하다. 더 담대하고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으로 1단계 '혁신전대'→2단계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 추진을 통한 통합적 국민저항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

했다. 안 전 대표는 "문 대표와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이 참여하는 '혁신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한다"며 "혁신전대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때만이 혁신과 통합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새로운 지도부는 천정배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 주어진 두 가지 과제인 '타성과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혁신'과 박근혜정권의 독단과 폭주를 저지하는 '통합적 국민저항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우선 문안박 연대

제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다"며 "안 전 대표가 제안한 방안이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최고위를 비롯해 의견을 듣고 난 뒤에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천정배 신당세력 등과의 통합 추진도 제안한 데 대해선 "우리 당내 단합과 함께 당 외에 있는 천정배신당 추진그룹과 함께 연대가 이뤄져 박근혜정권의 독재, 독주, 독선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안박' 연대 구상의 한 축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문 대표와 안 전 공동대표 사이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노력하겠다"고 답해 중재 역할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혁신토론회 참석 등을 위해 30일부터 1박2일간 광주를 방문한다. / 박지경·최권일 기자 jkpark@

11.25

GRAND OPENING

2015.11.25(수) Wednesday, November 25,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문화융성의 새 터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교류의 거점이자 문화콘텐츠의 창·제작, 전시, 공연, 유통이 어우러지는 아시아 최대의 복합문화시설입니다.

A newly established innovative center of cultural prosperity, the Asia Culture Center serves as the foundation where Asian cultural exchange and collaboration takes place. This groundbreaking venue promotes the creation, exhibition, performance and distribution of cultural production as Asia's greatest culture complex.

www.acc.go.kr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우편번호) 61485 | TEL 1899 - 5566